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

서삼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요즘 대학에서는 벤처동아리 결성이 매우 활발하다.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수와 일반인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창업하는 열풍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면도 없지 않지만 정부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고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가시적인 성과도 가벼이 평가할 수 없을 만큼 클거라는 예상까지 등장한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개발, 생명공학 산업, 의학 연구 등 첨단 지식 집약적 분야에 대하여 대학의 창업활동은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학에 우리 나라 고급 연구 인력의 80% 이상과 예비 연구 인력이 집결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더 나아가 만시지탄(晩時之嘆)의 감마저 든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학문의 궁극적 목적 중의 하나가 새로운 기술 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에 의한 사회·경제·문화 발전을 진전시키는 점이라고 볼 때, 이 또한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와 개발(Research & Development)은 대학의 핵심 기능이다. 연구중심 대학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학의 이 같은 능력에 의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은 판가름 나게 된다. 지식기반 사회의 조기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천명하고 있는 현 정부

도 BK21을 통하여 대학을 개혁하고, 또 대학의 고급 연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상대적 열세를 만회하고 그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정책이 대학 개혁 정책이요, BK21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연구와 개발 모두가 대학의 핵심 기능인 것만은 틀림 없지만, 이들 양자 중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은 연구 기능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요즘 대학의 벤처 열풍은 대학의 연구 기능 보다는 개발 기능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대학은 벤처를 통한 돈벌이 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수와 연구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

개발(development)이 '아이디어의 상품화 전환과정(converting ideas into products)' 이라고 한다면, 연구(research)는 Stewart Alsop의 표현을 빌리면 '멍청히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는 행동이요, 손가락을 뻗어 일반인들이 볼 때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친 듯한 아이디어(crazy ideas)의 모색 과정' 이다.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선과 개량에 초점을 둔 활동이 개발이라면, 새로운 가설,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과학(new sciences)에 대한 가능성의 끊임 없는 모색과정이 연구이다. 눈앞의 상품화를 통한 이익 실

현보다는 보다 먼 훗날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과 새로운 사고나 이론에 대한 끊임 없는 활동이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이루어 질 때, 우리가 갈망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성공적 구축도 가능하다. 또한 대학의 기초 연구 수행을 통한 우수한 연구인력의 양성으로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지식기반 사회의 구축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는 대학의 본질 이요, 핵심 역량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연구개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대학의 연구 능력 향상과 고급 연구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BK21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그 지원책을 학생 개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학술정보 등 기본 연구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에 의한 가상적 연구 기반 구축(virtual research infrastructure)으로 효율적이고 협동적인 연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둘째, 대학은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우선 학술연구 정보시스템을 대학의 가장 핵심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도서관이나 정보처리 시스템의 질적 변화와 통합이 대학의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우리 나라에도 연구중심 대학(research institutes)을 선정하고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이 대학들만큼은 기초 연구나 이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아울러 집중으로 그 효과의 극대화를 동시에 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은 지식을 창출하고 차세대 과학기술 및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초과학 연구는 기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과 과학적 원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끝으로, 연구중심 대학 내 유능한 교수와 학생들은 벤처 창업 열풍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창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진지하게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 자금은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율과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구축의 성패가 우리 대학의 연구 능력과 우수 인재 양성 여부에 의하여 판기를 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정책 당국이나 대학 당국은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 대학의 질적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99**

서삼영

한국외국어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Pennsylvania대에서 경영학박사를 받았다. 한국전산원, 교육부 교육정보관리국장, 한국전산원 부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으로 활동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구조개혁 수단으로서의 정보통신기술", "국가정보화정책의 방향과 초고속 사업의 교육개혁의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정보통신기술" 등 다수가 있다.